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 내년에도 계속

전북교육청, 1월부터 매월 신청 기간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9~18세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를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도 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이스 정보제공 연계·등록한 9~18세가 대상이다. 2025년 1월 정기신청 기간은 1월

2~13일까지다. 2024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소속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매월 정기신청 기간은 1월 1~10일까지다. 신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학습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학업 중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군산·교창·부안 지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9~15세(초·중학교 단계)는 월 5만원, 16~18세(고등학교 단계)는 월 10만원이다. 전북에듀페이카드(체크카드 형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로 받게 된다. 전북에듀페이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편리하게 카드 발급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북교육콜센터(063-139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으로 쉽게 배워요’

전북자치도교육청, ‘똑띠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 개발·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집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똑띠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 교육환경의 올바른 정착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는 총 11화로 구성, 학생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웹툰, e북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료에는 건전한 디지털 수업 문화

정착을 위해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스마트기기 사용 기본예절 △건강관리 방법 등 스마트기기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답답이크의 위험성 등 생성형 AI 인공지능 윤리교육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채나는 전주전라초 교사, 이승지 군산동초 교사, 이지숙 전주만성중 교사 등 현직 교사들이 직접 자료 개발에 참여했다.

이 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SNS, 유튜브 등에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소양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통 능력, 자기주도성, 디지털 문해력 등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전문교과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차 직업계고 전문교과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문교과 신규 교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공통연수와 실습 및 체험 위주의 실무과목으로 운영됐다. 특히 선배 교사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신규 교사들의 교직 적응 지원을 돕고, 전문교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공통과정 연수는 △직업계고 인식개선과 소양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지도 사례 △미래 산업수요 및 지역 전략산업을 반영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미래역량강화사업 3년 운영 결과, 학교는 어떻게 멋지게 바뀌었을까 △마이스터고 추진 사례 등으로 운영됐다. 또 실무과목 연수는 △융합, 설계, 금형, 가공 실무 △밀링, 금형, 기계, 선반가공, 설비보전 실무 △각종 목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해 가구 맞춤 실무 △기계제도 및 TIG용접 실무 등 13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EIRC

2단계 사업 성과발표회

국립군산대학교 풍력 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혁신연구센터(이하 EIRC)는 지난 19일 라미다 군산호텔에서 ‘2단계 사업 성과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IRC(erc.kunsan.ac.kr)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2022년 4월에 설립된 풍력발전 분야 국내 대표적 연구센터이다. 이날 성과발표회 행사는 국립군산대학교 이대웅 교수(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단계(2022년 4월~2024년 12월) 사업성과 보고와 총 6편의 R&D 기술개발 성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들 중 특히 현대스틸산업(센터 참여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자켓 및 모노파일 설치기술 개발’ 관련 내용이 참석한 학생연구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크레드가 수제 초코파이로 뉴욕의 모아트레이딩과의 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의 자부심 ‘수제 초코파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빛나다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크레드’ 뉴욕 모아트레이딩과 수출계약 체결 중기벤처부장관 표창 수상 ‘접경사’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크레드(대표 최성은)가 수제 초코파이로 뉴욕의 모아트레이딩(MORE TRADING LLC, 대표 최순식)과의 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경사를 맞았다. 20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수출 계약은 전통과 맛이 갖는 전주 수제 초코파이를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유통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다. 모아트레이딩은 한국 중견기업 오푸기의 제품을 미국 뉴욕에 직접 수입·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 오푸기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하는 식품 유통회사다. 이어 18일에는 우수 중소기업 및 지원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지역

특산품 활용 및 지역 농가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성은 대표는 “이번 계약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첫걸음”이라며 “정성과 전통이 갖는 전주 수제 초코파이의 북미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김상진 대표이사는 “㈜크레드는 단순히 수투기의 제품을 미국 뉴욕에 직접 수입·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 오푸기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하는 식품 유통회사다. 이어 18일에는 우수 중소기업 및 지원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지역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차세대 반도체 성능 개선 새 전극 기술 개발

전북대 허근 교수팀, 전극·반도체 잘 연결되도록 금속 디칼로제나이드 2차원 소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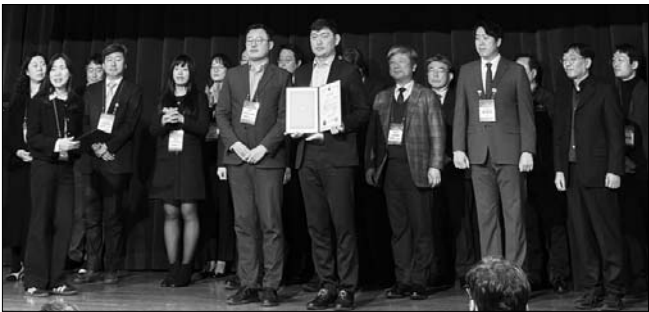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허근 교수가 이끄는 기초연구실(BRL)인 차세대극박막반도체연구실이 새로운 전극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 교수팀은 전이 금속 디칼로제나이드(TMD)라는 2차원 소재에 새로운 전극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토폴로지컬 반데르발스 접촉(T-vdW)’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쉽게 말해, 전극과 반도체가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특수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높은 전기가 손실없이 흐를 수 있고, 외부의 인자에 반응하는 민감도도 크게 증대됐다. 기존의 반도체 전극에서 발생하던 금속 유도 갭 상태와 쇼트키 장벽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인 ‘ACS Nano’에 게재됐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인 Kostya S. Novoselov 교수 등 국제 연구진이 협력해 연구 가치를 높였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RL)과



전북대학교 허근 교수(사진 맨 오른쪽)가 이끄는 차세대극박막반도체연구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의 4단계 BK21 사업 등에서 연구를 지원받아 전북대에서는 이태훈 교수(신소재공학부), 이윤경 교수(신소재공학부), Soheil 박사(반도체화학공학부), 이현진 석사과정생(반도체화학공학부) 등이 참여했다. 허 교수는 “이 기술은 미래의 초

미세 반도체 소자에 적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각종 스마트 기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전자공학부)가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공로 인정

전북대 김기현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받아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도내 반도체 기업 취업 연계

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전자공학부)가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패키징·테스트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성균관대, 단국대, 전북대, 경성국립대, 영진전문대 5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2023년 선정되면서 출범했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북대학교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사업 부단장을 맡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융합전공’ 및 ‘14개의 수준별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신설,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가상현실 반도체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기업과의 WE-MEET 프로젝트 운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등 지역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도비 4억5000만원으로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자 대상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반도체 기업에 취업연계하는 성과를 이뤘다. /장은성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전북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산학연 혁신 포럼.

전북 미래가치 창출… 전주대 HUSS사업단, 지산학연 혁신 포럼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 이하 HUSS사업단)은 지난 19일 전북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산학연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 지역의 문화자원과 체계성을 기반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협력해 새로운 지역 혁신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가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전북대 이태웅 교수, 전주대 이용욱 HUSS 사업단장,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패널 토론에서는 변주승 소장(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명수 대표(호름출판사), 박지경 연구위원(전북

연구원)이 참석해 지역 가치와 출판문화산업의 연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전주대 HUSS 사업단은 지역 발전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1월 6~10일 HUSS 컨소시엄 간 공동 융합캠프(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와 ‘HUSS 지역 컨소시엄 융합캠프(지역의 혁신 가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는 사업단 홈페이지(www.jiac.kr/huss)와 인스타그램(@jhu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민 헬스케어 아카데미

내년 1월 17일까지 운영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황갑연)은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역민을 위한 헬스케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민의 헬스케어 소양을 함양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로는 소피아 여성의원 두재균 대표원장, 전북대 치대 윤정호·서재민 교수, 전북대 의대 김종석·이호·조동휴 교수, 전북대 간호대 소은선 교수, 유방암 세계 100대 의료전문가(IBC) 정성후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교영호 고문, 박종관 박종관비노의학과의원 원장, 전북대 철학과 황갑연 교수, 전북대 수의대 김남수 교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수강신청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ce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겨울학기 어학연수생 입학식

전주기전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19일 겨울학기 어학연수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조희천 총장, 강진석 국제협력처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입 외국인 유학생 88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손·JOB·GO With JB’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학 당일 공항에서의 환영식 및 밀착형 초기 생활 적응 지원은 물론, 전문적 한국어 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학생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우수 기업 탐방 및 문화 체험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호감도 상승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강진석 처장은 “도내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전북을 경험하고,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